

# UN, 김정은 국제 법정에 세우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를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영국·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지난 주말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를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관심을 보이는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의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 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

## 인권 결의안에 北 인권·김정은 ICC 회부 담길지 주목

### 中 지난해 안보리 안전 상정 반대... 성사 여부는 미지수

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최소한'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은 "유엔이 그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채택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통상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실제 ICC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사실관계나 혐의에 따라 책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올해 결의안에 명시될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확정되기까지 관심·관련국의 의사개진으로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책임자의 ICC 회부 외에도 ▲책임자 처벌 ▲납치·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 ▲북한 인권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안보리가 조속히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식 안건으로 올린 상황에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를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재추진함에 따라 북한도 적잖은 압박을 느끼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ICC회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치베 유스트라 네덜란드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길제-리엔 공군기지에서 지난해 7월 피격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 사건 최종 조사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장 뒤에 격추된 여객기의 조종석을 복원해 놓았다.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추락 말레이 여객기 참사 은폐

### 조사단, 기장 시신서 러 미사일 파편 의도적 제거 밝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해 298명의 사망자를 낸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17편 여객기 추락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발견됐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이끄는 MH17편 추락사건 국제조사단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격추된 MH17편 기장의 시신에서 러시아 미사일 파편들이 의도적으로 제거되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한 시도가 있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기장의 시신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시신 내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부기장의 시신에서 대부분이 금속인 120여개의 파편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수거한 파편 중에는 나비넥타이 모양의 금속파편 2개도 있었다며 이는 러시아산 브크 지대공 미사일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추락 직후 촬영된 사진에 있었던 여객기 부품과 화물 일부, 조종석의 항공전자기기도 추락현장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MH17편은 작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가던 중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 상공에서 격추돼 승객 283명 등 298명이 모두 숨졌다. 이중 네덜란드인이 196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당시 추락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던 곳이다. /연합뉴스

## 미국인 10명 중 8명

### "한국과의 관계 중요"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7일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남녀 2034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66%는 한국을 믿을 만한 동맹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2%는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한국을 침범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투입해야 하는냐는 질문에는 47%가 찬성, 49% 반대 입장을 각각 보였다. /연합뉴스

## 日, 유네스코 지원 삭감 거론

### 현지 언론도 "도 넘었다"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될 것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지원금 중단·삭감을 거론하는 것에 일본 언론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신문은 유네스코 분담금이나 각 출금 지급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의 발언에 관해 14일 사설에서 "반드시 발언대로 진행한다고만 할 수 없다"면서 "진의가 어떠한 책임 있는 정치가가 할 언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분담금을 재검토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사실을 실었다. /연합뉴스

# 힐러리 對 샌더스 TV토론서 '총기규제' 싸고 정면 충돌

## 힐러리 "소유자 신원조회 강화"

## 샌더스 "정신 문제 있는 자만"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무소속 출신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의 첫 대선 TV토론에서 총기규제와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대외 군사개입 정책을 놓고 정면 격돌했다.

그러나 당초 핵심 쟁점으로 예상됐던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은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오후 8시30분(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14일 오전 9시30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1차 TV토론에서 클린턴과 샌더스, 마틴 오말리, 짐 웹, 링컨 채피 등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5명은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가 없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특히 총기규제 문제를 놓고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서로 대립했다.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를 향해 "1993년 당시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래디법'의 통과를 무려 다섯차례나 반대했다"며 "총기규제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공격했다.

클린턴 후보는 이어 "총기 폭력으로 매일 9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는 나라 전체가 전미총기협회(NRA)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나라의 대다수는 총기 소

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하는데 동의하고"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샌더스 후보는 "예를 들어 버몬트주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파는 상점에서 누군가 총기를 사서 미친 짓을 저질렀다면 그 총기를 파는 상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샌더스 후보는 "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잠재적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 총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과거 이라크 전쟁과 최근 시리아 사태에 대한 대응정책을 놓고 서로를 향해 각을 세웠다.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지난 2002년 찬성했던 이라크 전쟁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정책 실패"라고 비판했고, 이에 클린턴 후보는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 버락 오바마 당시 후보와 25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나를 국무 장관에 지명하면서 나의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였던 '이메일 스캔들'은 두 대러지게 거론되지 않았다.

클린턴 후보는 사회자의 질문에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가능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면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에 나와 "우리가 뺨까지 특위를 꾸려 클린턴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특위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을 놓고 역공을 취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호텔에서 유세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중 트럼프 호텔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마틴 오말리, 짐 웹, 링컨 채피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5명은 13일 오후 라스베이거스의 '원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미국 CNN 방송과 페이스북 공동 주최로 첫 TV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m2(668평)  
건물 4218m2(1276평)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 파격적인 임대조건(보증금 및 차임)

문의 010-7570-7525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